



돌아오는 외국인

1. 3달 넘게 이어진 외국인 매도

- 경제 위기시 주식투자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는 개인은 이번 1분기에 주식 직접 투자 크게 늘림. 반면, ETF 등 간접투자상품에는 투자 크게 늘리지 않음
- 외국인은 투자심리 악화와 달러 강세로 3달 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옴. 5월말부터 외국인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늘리고 있음

2. 글로벌 펀드 유출입과 유사한 외국인 수급 패턴

- 2~4월에는 외국인 중 미국과 케이맨제도가 각각 8.2조원과 3.1조원의 주식 순매도
- 신흥국 주식펀드와 ETF에서도 3월부터 4월까지 자금 유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주식 매도 규모 크게 증가
- 5월 이후 신흥국주식펀드의 자금 유출 규모 축소

3.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높지 않음

- 연초 이후 4월까지 신흥국주식펀드 안에서 브라질과 인도의 비중은 줄어들었음
- 코로나19 확산이 일단락 된 중국의 비중은 4개월 동안 4% 증가
- 4월말 신흥국주식펀드 안에서 한국의 비중은 8.7%로 역사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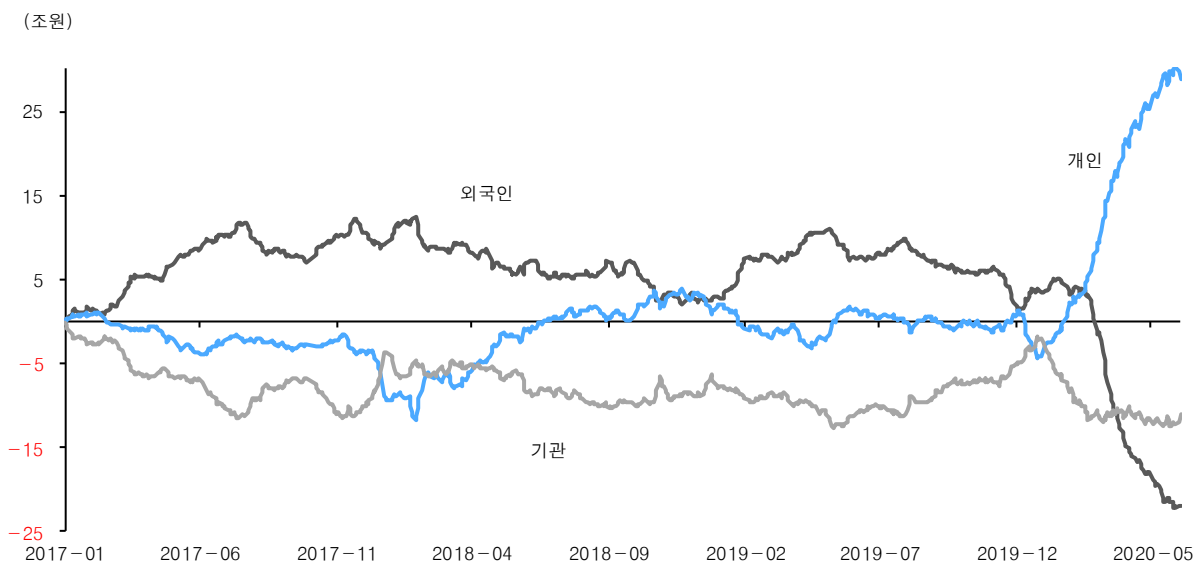
1. 3달 넘게 이어진 외국인 매도

코로나19의 팬데믹은 개인투자자를 주식시장으로 불렀다.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 위기 등 변동성 극대화 국면에서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2020년 3월에는 적극적인 투자 주체로 나섰다. 반면, 외국인은 투자심리 악화와 달러 강세로 3달 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왔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의 하락폭이 클 때는, 국내주식ETF 등 인덱스펀드로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하지만 이번 3월 주식시장 급락에는 ETF보다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간접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택한 것이다.

2달 넘게 이어지던 개인 순매수와 외국인 순매도는 5월말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KOSPI지수가 2100pt를 넘어서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줄어들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 등 유동성을 확대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차트1]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주체별 누적 순매수, 3월 이후 개인은 매수하고 외국인은 매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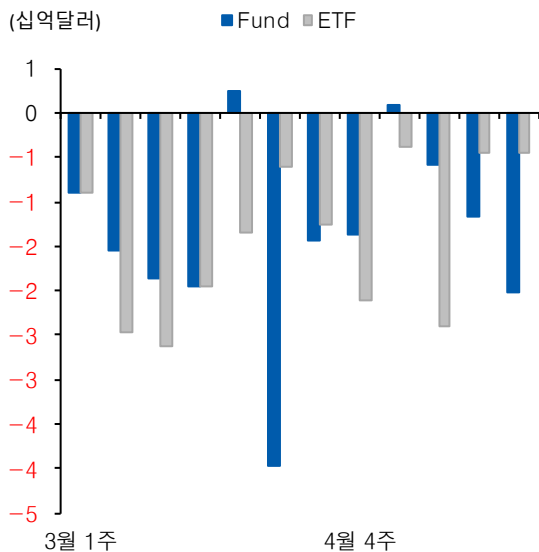
2. 글로벌 펀드 유출입과 유사한 외국인 수급

2~4월에는 외국인 중 미국과 케이맨제도가 각각 8.2조원과 3.1조원의 주식을 순매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케이맨제도는 역외펀드와 헤지펀드 등의 비중이 높아, 시장 리스크가 커질 때 매도규모가 커진다.

3월 매도 규모가 가장 컸던 국가는 5.5조원을 매도한 미국이며, 미국은 펀드의 투자 비중이 높다. 3월에는 전세계 주식 시장이 급락하면서, 펀드에서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갔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큰 신흥국 주식펀드와 ETF에서도 3월부터 4월까지 자금 유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매도 규모가 크게 늘었다. 4월 미국의 매도 규모는 9990억원으로 3월의 5.5조원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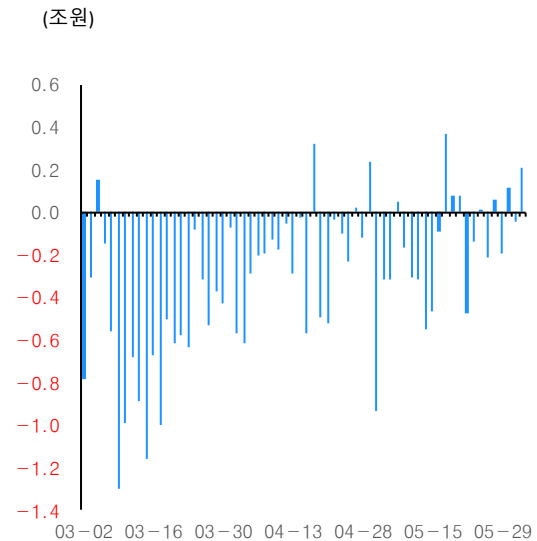
4월에는 코로나19 진정 기대감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주식펀드는 순유입으로 돌아섰으나, 5월에는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환매 증가로 선진국 주식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왔다. 5월 마지막주에는 환매가 일단락되면서, 선진국 주식펀드에서의 자금 유출 규모가 줄어들었다. 신흥국 주식펀드에서는 자금 유출이 이어졌으나, 아시아(일본 제외)주식펀드는 순유입 전환되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외국인은 순매수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차트2] 신흥국 주식펀드와 ETF, 자금 유출 규모 축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 감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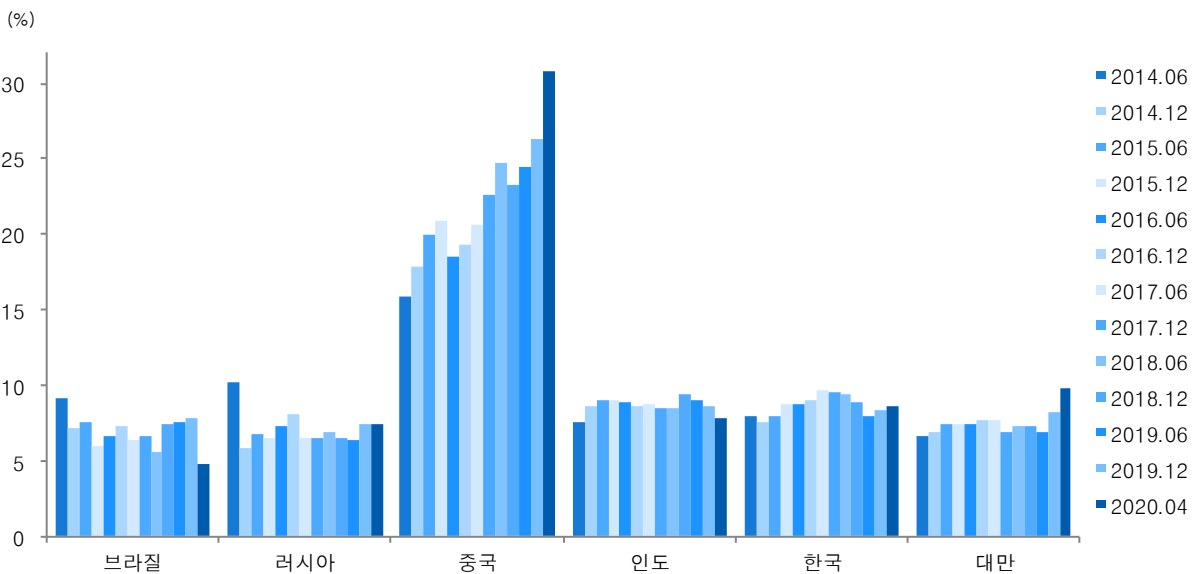
신흥국 주식펀드(ETF포함)와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ETF포함)의 규모는 각각 6609억달러와 1846억달러이다.(4월말 기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각국의 투자 비중(펀드의 단순평균) 변화도 컸다. 연초 이후 4개월 동안 브라질의 비중은 원자재 약세와 코로나19 확산으로 7.8%에서 4.9%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인도는 8.7%에서 7.9%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일단락된 중국의 비중은 26.3%에서 30.8%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만은 4개월간 신흥국 내 투자 비중이 8.3%에서 9.8%로 늘어났다.

신흥국 펀드 안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같은 기간 8.4%에서 8.7%로 늘어났다.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던 2017년에는 우리나라 비중이 9.8%까지 늘어났던 것을 감안해보면, 신흥국 펀드 안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투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실적만 뒷받침되면, 한국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이루어지기 유리한 조건이다.

[차트3]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투자 비중은 8.7%로 높지 않은 수준. 향후 비중 확대 여력 있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